

# 2019 글로벌 제약 M&A 동향 및 주요 사례

안세희 주임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배진건 박사 BioScience

## 개요

현재 글로벌 제약 산업의 M&A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행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의약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이로 인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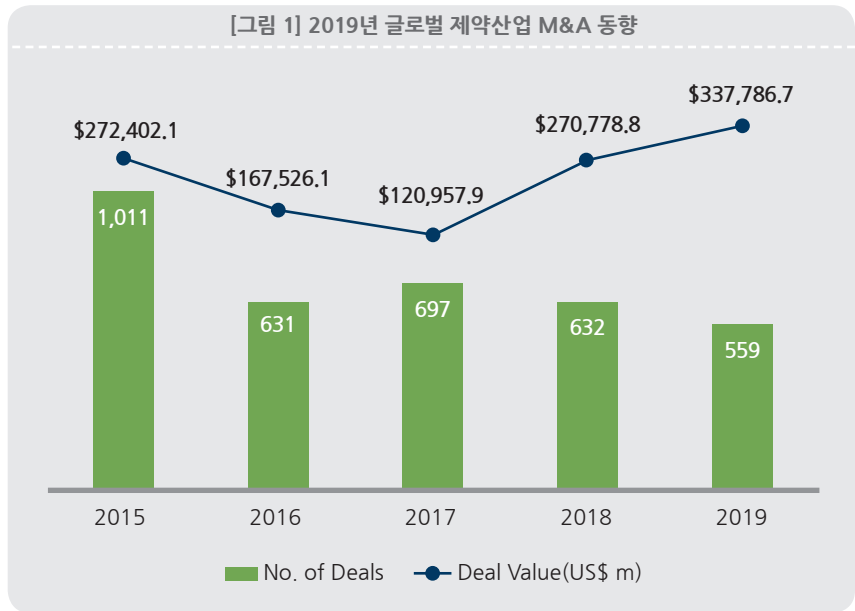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에 대비하여, 글로벌 제약사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하나의 수단으로 기업 간 M&A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 및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 동향

현재 글로벌 제약 산업의 M&A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로 2018년에 약 2,707억 달러에 달하는 632 개의 거래가 성사되었고, 2019년에 3,377 억 달러에 달하는 559 개의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으로 세계 제약 산업에서 M&A를 통해 타 기업의 후보물질을 사들이거나 기업을 인수하는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18년보다 거래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거래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통해, 현재 제약-바이오 업계는 메가 딜(Mega deal)통해 신약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R&D의 효율성을 높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선점하려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2019년 글로벌 제약산업 M&A 동향



출처: GlobalData, Pharmaceutical & Healthcare Annual Deals Analysis: M&A and Investments Trends - 2019

### 2019년 제약 산업 대표적 M&A

2019년에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 진행된 대표적 M&A 메가 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기업 간 M&A를 통한 자산 통제와 핵심기술력을 확보가 최근 과열되는 제약 산업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기획의 창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2019년 글로벌 제약산업 대표적 M&A 정리

구분	인수기업	피인수 기업	거래 유형	거래 금액 (US\$ m)	거래 일자
1	Bristol-Myers Squibb Co	Celgene Corp	인수	74,000.0	19.01.03
2	AbbVie Inc	Allergan Plc	인수	63,000.0	19.01.25
3	Danaher Corp	General Electric Co	자산 거래	21,400.0	19.02.25
4	Amgen Inc	Celgene Corp	인수	13,400.0	19.08.26
5	Pfizer Inc	Array BioPharma Inc	인수	11,400.0	19.06.14
6	Novartis AG	The Medicines Co	인수	9,700.0	19.11.24
7	Eli Lilly and Co	Loxo Oncology Inc	인수	8,000.0	19.01.05
8	Dassault Systemes	Medidata Solutions Inc	인수	5,800.0	19.06.12
9	Stryker Corp	Wright Medical Group NV	인수	5,400.0	19.11.04
10	Novartis AG	Takeda Pharmaceutical Co Ltd	자산 거래	5,300.0	19.05.09

출처: GlobalData, Pharmaceutical & Healthcare Annual Deals Analysis: M&A and Investments Trends - 2019

## 📦 2019년 주요 M&A 사례 TOP 5

### 1. BMS(Bristol-Myers Squibb Co.)의 Celgene 인수



제약회사 BMS(Bristol-Myers Squibb Co.)는 현금과 주식거래로 약 740 억 달러의 규모로 바이오 제약 회사인 Celgene Corp을 인수하였음. 합병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정부 기관으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4월 12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BMS 및 Celgene 주주의 승인을 받음. 또한, 인수합병에 따라 Celgene 주주는 주당 BMS 한 주와 미화 50 달러를 받게 되고 거래 가능한 조건부 가격청구권(CVR)를 통해 주주에게 미화 9 달러의 지급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됨.

2019년 11월 21일, 새로 발행 된 BMS 주식과 CVR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며 기업 가치는 895 억 3 천만 달러일 것으로 예측됨. 거래가 완료되면 BMS 주주는 회사의 약 69%의 지분을 소유하고, Celgene 주주는 약 31%를 소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이번 인수의 배경을 살펴보면, BMS는 암 치료 분야에서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 치열하게 경쟁 관계에 있던 중, 2016년 핵심 임상이었던 ‘옵디보’의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 실패에 이어, 당시 경쟁 약물인 머크의 ‘키트루다’가 임상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면서 경쟁 관계에서 선두를 빼앗기게 됨. 한편, Celgene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주노테라퓨틱스를 인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주가가 하락하는 난항을 겪었으며, 주력 의약품인 ‘레블리미드’가 2026년 특허 만료 예정이라, 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던 중,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두 기업 모두 위기를 극복할 발판으로 삼은 것으로 보임.

BMS는 이번 Celgene 인수를 통해, 암, 혈액학, 면역학, 심혈관 질환의 주요 질병 프랜차이즈로 BMS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특히, Celgene의 5대 블록버스터급인 JAK 억제 골수 섬유증 치료제 인레빅(Inrebic), 빈혈 치료제 레블로질(Reblozyl), 다발 경화증 치료제 제포시아(Zeposia, ozanimod), CAR-T 치료제 리소-셀(liso-cel) 및 이데-셀(ide-cel)의 취득으로 인해 더욱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됨.

## 2. AbbVie의 Allergan 인수



글로벌 바이오제약회사 AbbVie가 보톡스 제조사 Allergan을 약 630 억 달러에 인수함. 이는 Allergan의 주식 증가 129.57 달러 대비 45%의 프리미엄을 더한 188.24달러로 산정된 액수로, AbbVie는 이중 주당 120 달러를 현금으로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는 합병 후에 회사 주식 0.8660주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획함.

AbbVie는 Morgan Stanley Senior Funding, Inc.와 MUFG Bank, Ltd.로부터 인수금액의 일부분을 확보했으며, 이번 인수로 AbbVie는 글로벌 매출 1위 자리를 유지해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품목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AbbVie는 2018년 매출의 약 61%를 휴미라가 차지할 정도로 휴미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2018년 유럽에서 휴미라 특허가 만료되면서 성장세 둔화를 기록하였으며, 휴미라 단일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Allergan의 인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AbbVie의 혈액암 등 항암제와 염증성 질환 파이프라인과, Allergan의 보톡스 및 의료미용·신경 질환·안구질환에 대한 기술력이 인수합병 이후 신경치료 분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3. Danaher의 GE Biopharma 인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Danaher Corp가 GE Healthcare Life Sciences의 Biopharma 산업을 약 214 억 달러에 인수함. 거래 구조에서 예상되는 세금 혜택을 고려할 때 순인수가격은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GE Biopharma의 예상 EBITDA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GE Biopharma는 바이오의약품 연구, 발굴, 공정 개발, 제조 작업흐름 등을 지원하는 기기, 소모품,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업체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및 소모품, 세포 배양 배지, 일회용 기술, 개발용 기기 및 소모품, 서비스 등으로 사업이 구성돼 있음. GE Biopharma의 2019년 연간 매출액은 약 3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액 중 약 75%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정적인 매출과 지속적인 성장이 검증된 것으로 보여짐.

Danaher는 주력 사업인 산업기계 외에도 식품과 의약품 등에 관련한 기기로 헬스케어 관련 분야 기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GE Biopharma의 생물공정 기술과 솔루션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인수가 기존의 생물제제 작업흐름 솔루션을 훌륭하게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2020년 04월 02일에 Cytiva로 재출범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Cytiva는 GE 헬스케어 라이프사이언스에서 분사해 Danaher 의 라이프사이언스 사업 플랫폼 기업으로 독립할 것으로 예측됨.

#### 4. Amgen의 Celgene의 Otezla 인수



바이오 제약회사인 Amgen은 Celgene의 염증 질환 치료제 오테즐라(Otezla®, 성분명: apremilast)를 현금 134 억 원 달러에 인수함. 이는 2001년 이뮤넥스(Immunex)를 160억 달러에 인수해 자사로 편입한 후, Amgen이 거래한 가장 큰 규모의 거래임.

오테즐라는 염증세포 내 PDE4 (phosphodiesterase 4) 효소를 타겟한 선택적인 PDE4 저해제로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임. 건선은 피부가 붉어지고, 각질, 가려움증, 통증 등을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으로 전 세계 약 1%의 유병률을 보이며 한국을 포함해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음.

앞서 언급한, BMS와의 합병을 앞둔 Celgene은 오테즐라가 BMS의 TYK-2 억제 신약 BMS-986165와 겹친다는 이유로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독점 우려 때문에 오테즐라의 매각을 지시받아 추진되었으며 M&A 과정에서 Celgene은 Amgen에게 오테즐라의 글로벌 판권과 함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됨.

일각에서는 자가면역질환 억제 건선치료제인 엔브렐(Enbrel)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암제비타(Amjevita)를 이미 가지고 있는 Amgen이 동일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오테즐라를 들여오는 것에 의구심을 보내왔으나, 이번 인수로 Amgen은 뉴라스타(Neulasta)와 센시파(Sensipar, cinacalcet)의 복제약 경쟁에 난항을 겪던 중, 단기적 매출 증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됨.

#### 5. Pfizer의 Array BioPharma 인수



Pfizer Inc는 암 및 기타 미충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저분자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Array BioPharma Inc.를 약 114 억 달러에 인수함.

특히 이번 인수는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Array BioPharma Inc.는 특정 환자의 암을 유발하는 유전적 결함을 변화시키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로 피부암, 결장암, 직장암 환자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Pfizer는 현금으로 1 주당 48 달러에 Array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Array의 증가에 62%의 프리미엄을 얹은 값으로 Array BioPharma를 인수해 바이오 제약 부분 사업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이번 인수를 통해 Pfizer는 BRAFV600E 혹은 BRAFV600K 변이 결절불가/전이성 흑색종 치료에 복합으로 승인된 Array의 BRAF 억제제 브라토비(Braftovi, encorafenib)와 MEK 억제제 멕토비(Mektovi, binimetinib)를 얻게 되었으며 유방암 및 전립선암 분야를 넘어 대장암 분야까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됨.

### < 참고자료 >

1. GlobalData, Pharmaceutical & Healthcare Annual Deals Analysis: M&A and Investments Trends - 2019
2. 삼경KPNG 경제연구원, M&A로 본 제약바이오 산업 vol.65 2019

#### Writer

**안세희**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주임  
전화: 02-6677-7630  
e-mail: saysaysaya@jjpat.com

#### Reviewer

**배진건** BioScience, 박사

### BIO ECONOMY BRIEF

발행 : 2020년 08월 | 발행인 : 서정선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mail : Koreabio1@koreabio.org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KOREA BIO-ECONOMY RESEARCH CENTER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1005  
ISSN 2508-6812